



제목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발행일	2017. 3. 20.
저자	구기연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250
ISBN 또는 ISSN	978-8952118691

#### 내용 요약

이 책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인 이란 제3세대의 도시 젊은이들이 이란의 전통적인 감정구조와 이슬람 정권의 감정 통제 속에서 자신들의 자아를 구성해 가는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도시 젊은이들이 공적인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이슬람 도덕 공동체의 구조와 이상적인 무슬림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 담론적 배경. 둘째, 도시 젊은이들의 자아와 감정이 표출되고 감추어지는 방식. 셋째, 2009년 이란 녹색운동(The Green Movement)의 전개양상과 젊은이들의 역할.

저자가 중점적으로 연구한 대상은 테헤란 북부나 북서부에 거주하는 고학력 전문직의, 반정부 성향의, 세속적이고 개방적인 중·상류층 젊은이들이다. 연령대는 저자의 연구 당시 만 16세 이상 만31세(1979년 이후 출생) 이하였고, 성별은 여성 47명과 남성 32명이었다. 다만 그들 중 여성 8명과 남성 9명은 혁명 1,2세대로서 30대 후반~70대의 다양한 연령대였고, 여성 8명과 남성 7명은 테헤란이 아닌 지방 대도시 거주자였다. 저자의 연구 결과, 이란 젊은이들이 자아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이데올로기가 때로는 억압기제로 때로는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란의 불안한 사회 구조 안에서 이란 젊은이들은 개혁의 희망인 동시에 위험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한다. 이 책의 의의는 이란 젊은이들의 문화를 통해 이란 사회의 문화 심리적 모델을 구성하여 그동안 이슬람 사상과 이데올로기라는 거대 담론에 가려져 왔던 이란사회의 실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